

복식과 미용문화를 통해 바라본 발해사연구

석은경*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전공 박사과정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전공

1천 300여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있는 발해는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서 해동성국으로 불렸을 만큼, 국력이 강화되었던 우리민족의 활기찬 역사의 무대였다고 말할 수 있다. 발해는 698년 대조영에 의해 건립된 때로부터 926년 말대왕 대인선 시기 거란의 침입에 망할 때까지 229년간 존속하였다. 고구려에 이어 7세기말부터 1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북방지역의 주인이며, 한국북방사의 핵심적인 국가였던 발해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의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창구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발해의 영역은 지금의 북한과 중국의 길림성, 흑룡강 성 일부,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에 까지 미쳐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 중심적 태도로 발해가 고구려 계승 국이 아닌 말갈족이 세운국가이며, 당의 지방정권의 일부로 비화 되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연해주를 자국 령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들이 세운 최초의 중세봉건국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발해사는 사료부족과 역사연구 이외의 조작된 사실들로 인하여 그 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과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의 주장을 내세움으로서, 그 왜곡정도가 심하다는 것이 애로점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유물의 발굴 조사의 속성상 조사된 유물의 정리나 자료화는 현장 조사 후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실시하여야 함에도 한국으로 유물반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서 귀중한 출토유물의 조사가 현장에서 개략정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으므로 정확한 복원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황만을 정리하는 우리학계의 한계도 그 이유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발해사의 복원은 한국고대사의 진정한 자리매김이라는 의미와도 상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사료와 유물발굴의 어려움만의 탓만 있을 것이 아니고 부단한 연구와 다양한 인접 학문의 성과를 받아들이고 서로 접목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패션이 사회를 반영하는 ‘시각적인 상징’ 이라 할 때, 복식과 미용문화는 문명과 문화의 연계성을 직접,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문화의 속성이 다양함에 있듯이, 다양한 문화와 문명의 징표에서 공통된 속성을 추출해서 대조 비교하여, 그 상사점을 짚어내는 일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고구려와 발해의 관계를 증빙하는 데에 있어 시대를 반영하는 복식과 미용문화를 연구하고 추정해 봄으로서, 지리적 연계성외에 문화적 연계성이 동남아 대외교류사의 한계를 보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의 내용은 발해의 사회 문화적요소중, 그 시대를 반영하는 복식과 미용문화인 두발양식, 화장 문화, 장신구, 향료 등을 사적(史的)과 유물 고증을 통해 연구해봄으로서, 발해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단순한 고구려 문화의 계승뿐 만이 아닌 주변 토착지역의 여러 문화를

* Corresponding Author : ek98suk@hotmail.com

발해인 이 혼합하여 만든 창조적인 양식임을 입증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배계층은 고구려인들이었지만, 발해건국의 중심지는, 원래의 말갈족의 거주지였으므로, 사회의 기층세력을 형성하는 것은 말갈족이었다. 또한, 발해는 당나라의 문화적요소도 적극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의 문화적요소가 복식과 미용문화에도 혼합되어 그 속에서 발해인 들의 고유의 복식문화가 창조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의 요소도 있고, 왕래가 있었던 신라와 일본의 문화적요소도 숨어 있을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발해의 유적과 사료를 통한 연구를 진행해 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고구려, 당나라, 말갈인의 복식과 미용문화를 사적과 문헌자료를 통해 고찰해보았고, 현존하는 유적과 벽화를 통하여, 그들의 복식과 두발양식, 화장문화, 향료, 장신구 등을 고증하고 추정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시대적 범위로는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였다는 관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고구려시대 벽화도 참고하였으므로, 고구려시대부터 발해가 존속했던 시대까지 한정하였으며, 유물자료는 주로 무덤에서 발굴된 벽화의 인물들이 입었던 의복과 장신구, 두발양식과 유품들로 설정하였다.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 문화를 기본으로 한 말갈 문화와 당나라 문화, 비록 문헌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남부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던 ‘담비의 길’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주변국가의 문화를 흡수했던 발해는 발해 특유의 다양한 요소들로 복식과 미용문화가 복합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우리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던 발해사는 「한국의 왕조사에서는 제외 당하였으나 민족통합과정으로 보면 한국사에서 발해사의 위치는 중요하다고 본다.」

발해인이 이룩한 문화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이 시점에서 발해인이 7세기 말엽에서 10세기 초엽까지 동북아시아의 한 넓은 곳에 살았던 우리민족문화의 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은 이 시대의 연구자들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의복과 머리모양, 화장, 장신구 등은 그 시대 사회를 반영하는 시각적 상징이라 할 때 발해 복식과 미용문화는 사회, 문화적 현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되어진다.

발해는 고구려의 복식과 미용문화와 말갈족의 옷차림과 습관 등을 기초로 하고 당나라의 복식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발해만의 독특하고 새로운 복식과 미용문화를 창조하였다. 하지만 북방의 흑수말갈과 변원 지구에 거주하는 말갈족의 옷차림은 매우 낙후되었기 때문에 발해의 복식과 미용문화는 고구려의 복식문화를 토대로 하여 발전하고, 당나라 복식과 미용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진다. 출토된 유물, 유적과 사료 등을 종합해 보면 고구려의 성격을 반영하는 여러 자료 등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벽화에 그려진 발해인의 모습에서 고구려 벽화에 그려진 고구려인의 복식과 미용문화를 찾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문화와 생활상을 가늠하여 추정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에 실학자들이 발해의 역사를 재발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준 덕택으로 200년 뒤의 후세 연구자들이 자신 있게 우리 역사라고 주장하고 또 연구할 수 있듯이 복식과 미용문화를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 또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준비하고 연구하여 발해사의 온전한 복원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